

올 여름 목포 · 보성서 바다 콘서트 즐기세요

농식품부, '목포는 항구다' · '별교꼬막 콘서트' 등 전국 3곳 국비 지원

'올 여름 목포와 보성 해변에서 아름다운 선율이 흐르는 바다 콘서트 즐기세요.' 전라남도는 아름다운 어촌과 바다를 배경으로 관광객과 어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흥을 돋울 수 있도록 농림수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바다콘서트 개최 등 축제지원 공모사업에 목포시와 보성군이 선정됐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신청받아 지자체 관심도, 주민 참여도, 어촌관광 활성화 노력

등 각 분야별 심사를 통해 목포와 보성 등 전국 3개소를 선정할 것으로 각각 5천만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

목포시의 경우 여름 대표축제인 해양문화축제와 연계해 콘서트를 개최할 경우 시너지(연쇄상승)효과가 크다는 점, 보성군은 색다른 해양레저 스포츠인 뱃배대회와 연계해 아이디어 측면에서 우수했다는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에 따라 목포의 경우 7월 30~31일 '목포는 항구다'라는 주제로 어민

들과 함께하는 '두드림 난장', 목포 가요제, 시립교향악단의 '항구칸타타' 등 다채로운 콘서트가 펼쳐진다.

보성에서는 8월 7일 별교를 장암리 일원에서 '별교꼬막과 함께하는 천상갯벌 콘서트'라는 주제로 갯벌 가요제, 국악한마당, 초청가수 공연, 전국레저뱃배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최성현 전남도 해양항만과장은 "목포시, 보성군과 협조해 바다콘서트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적

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며 "내년에도 전남에서 보다 많은 바다 콘서트가 개최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에는 바다콘서트 개최 등 축제지원사업에 해남이 선정돼 제1회 땅끝순호해변 바다콘서트 가 열려 1만명 이상의 해변 이용객과 지역주민들에게 신선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목포 김정안)

여주 도자세상에서 만나는 여름 식탁

17일부터 'Cool Summer 그릇전' 시작



365일 도자문화소핑 관광지 여주 도자세상에서 지난 17일부터 내달 3일까지 'Cool Summer 그릇전'을 열어 무더위에 입맛을 살리는 여름식기를 선보인다.

'Cool Summer 그릇전'은 여주 도자세상에 입점한 행남자기, 삼보도자기, 다솜도예를 비롯한 30여개 요정에

서 참여한다. 이번 그릇전에서는 여름 음식인 콩국수, 막국수, 냉면 등 면류를 담을 수 있는 대접과 식혜, 수정과, 동치미 등에 어울리는 소면기를 비롯하여 물컵, 아이스크림 컵, 팔방수 그릇, 화채용 볼 등 다양한 여름용 생활 도자를 전시와 함께 판매한다.

아울러 'Cool Summer 그릇전'이 진

행되는 매 주말에는 전문 푸드스타일리스트가 매일 새로운 음식 시연을 선보이며 시식행사를 진행한다.

이외에도 통기타 공연, 물레시연 및 도자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1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도자기 사은품을 증정한다.

여주 도자세상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국내 최대의 복합도자문화쇼핑몰로 테마별로 구성된 '디빙샵', '아트샵', '브랜드샵', '갤러리샵' 등 쇼핑몰과 함께 팔각한옥회랑인 '도예랑', 도자전문갤러리 '반달미술관' 등이 조화를 이룬 국내 유일의 복합도자문화관광지다.

관계자는 여주 도자세상 'Cool Summer 그릇전'을 통해 한여름 무더위를 식혀줄 여름 그릇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하고, 도자세상과 함께 인근에 위치한 신록사, 명성왕후생가, 세종대왕릉 등을 둘러보며 도자문화를 체험하고 역사를 탐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 김영배)

제6회 세계 노인학대인식의 날 '효' 실천 캠페인 전개

부모님에 대한 효도 서약서 작성 등 다채롭게 진행

인천시는 지난 15일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중앙광장에서 노인학대인식의 날을 기념하여 부모님에 대한 효도 서약서 작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효' 실천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행사는 인천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정희남 관장)에서 주관해 11시부터 16시까지 진행하였으며, 전국 16개 시·도 총 23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학대의 예방을 위해 캠페인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전국적으로 동시에 전개되었다.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이란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 수준 증진, 노인학대예방 대책마련 등을 위한 시

민인식개선 캠페인의 일환으로, 세계노인학대방지망(INPEA)이 UN, WHO와 함께 지난 2006년 6월 15일을 제1회 세계노인학대 인식의 날(WEAAD: World Elder Abuse Awareness Day)로 선포되었으며, 노인학대에 대한 부담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적 인식과 대처능력을 증대시키고자 INPEA가 주도하고 UN, WHO가 지원하는 전 세계적 캠페인으로 세계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인 인식개선활동 진행하며 올해로 6회째를 맞았다.

캠페인은 모든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부모님에 대한 효도서 약서를 작성하는 '나는 효자다', ▲

노인들과 일반인들이 소망하는 메시지가 열매 맺는 '희망나무', ▲젊은이들이 어르신들이 힘든 상황을 체험할 수 있는 '노인체험', ▲부모님 및 자녀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내 문자가 들려니?', ▲학대유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U Know 人 학대' 등의 프로그램 이외에도 노인인식개선 카툰전시회, 가족단위 참여자에게 무료로 즉석사진을 촬영하여 증정했으며, 캐리커처 및 기념품을 나눠주는 다양한 구성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캠페인 참여를 유도했다.

노인참여자인 이옥자(69)는 "젊은 사람들과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체험부스가 흥미로웠으며, 캠페인을 통해 젊은이들에게 흐려져가는 '효' 사상을 일깨워 준 것 같아 흐뭇했다."면서 이러한 행사가

자주 있었으면 한다."라고 말했고, 일반시민참여자인 이해원(28)은 "평소에 노인학대, 노인인권에 관심을 가지지 못했는데 이번 캠페인 참여를 통해 노인들의 어려움을 몸소 느낄 수 있었고, 부모님에게 효도 하겠다고 다짐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인천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 정희남 관장은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전 세계, 전국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는 날이며 노인학대는 부모님 및 어르신들에 대한 공격과 효 가치관에 변화 때문에 발생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캠페인은 참여자들이 '효'에 대한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의미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고 말했다.

(인천 이만복)

목포 원도심 빛의 거리, 야간경관조명 탄력적 점등

'빛의 거리' 경관조명은 생존의 등' 주민들의 입장 반영 목포 원도심 상가 빛의 거리 야간경관조명이 6월 17일부터 탄력적으로 점등된다.

빛의 거리 야간경관조명 전면 소등으로 인해 지역분위기가 침체되고 원도심을 찾는 시민, 관광객과 인근 상인들의 불편이 매우 크다는 여론이 제기됨에 따라 목포시가 원도심 상가 빛의 거리 야간 경관조명을 탄력적으로 점등하게 됐다.

빛의 거리는 경관조명으로 인식하지 말고 원도심 상가의 생존 등(燈)으로 인식해 달라는 원도심 상인회측의 입장을 심본 반영했다는 목포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목포시는 지난 17일부터 야간경관조명을 점등하며 점등 시간은 원도심 상가 피크 시간대인 일몰 후부터 22시까지로 조정했다. 하지만 목포시는 유달산, 교도도, 평화광장 등의 야간경관조명은 종전

대로 국가전력 공급체계 상황 회복 시 까지 경관조명을 한시적으로 소등한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시는 향후 국제유가의 변동 추이를 지켜보면서 유가 하락과 다각적인 에너지 절감 대책을 강구하여 목포시의 불거리는 야간경관조명에 대해 능동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목포 이석호)

전남도, 올 1기분 자동차세 560억원 부과 지난해보다 1만대 11억원 증가

전라남도는 올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도내 등록된 자동차 59만4천대에 대해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제1기분 자동차세 560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 증가한 것으로 이는 자동차 등록대수 1만대,

세액 11억원이 각각 늘어났기 때문이다.

차종별은 승용 자동차가 8천대 10억원, 화물자동차가 2천대 1억원이 증가했다. 시군별로는 여수가 8만6천대 8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순천 8만6천대 87억원, 목포 7만대 73억원, 광양 5만3천대 53억원, 나주 3만3천대 29억원 등의 순이

었다.

이번에 부과 고지된 자동차세는 납세자가 전국의 모든 은행, 농협, 우체국 등에서 자동차세 고지서로 직접 납부할 수 있고 납세 고지서가 없어도 CD/ATM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위탁세(<http://wetax.go.kr>)

에 접속하면 계좌이체 납부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어 시중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자동차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고 납기 경과 후에는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안용찬 전남도 세무회계과장은 "자동차세는 시군세로 시군에서 지역 주민을 위해 직접 사용하게 될 소중한 재원인 만큼 지역 발전에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납기 내에 빠짐없이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 정영근)

경기농협 'NH채움 경기도 민원전철 365카드 선택

교통비 최대 20% 할인 등 가계 절감 서비스 특화

경기도(도지사 김문수)가 운영하고 있는 '365민원전철'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교통혜택 특화형 신용카드가 출시됐다.

경기농협(본부장 정영호)은 지난 16일 도청에서 'NH채움 경기도 민원전철 365카드(이하 민원전철카드)사업 출범식'을 가졌다.

민원전철카드에는 대중교통 이용

요금 최대 20% 할인, 농협하나로마트 및 대형유통업체 할인, 서비스 등 주민의 가계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문화의전당 입장료 20%, 경기도의료원 종합검진비 20% 할인을 받거나 이용할 수 있다.

경기농협 관계자는 "금융 상담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지역주민에게

경기도 민원전철을 적극 홍보하고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카드를 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도가 지난해 세계 최초로 도입한 민원전철은 1호선(서동탄~성북 구간) 전철 1량을 개조하여 민원상담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바쁜 일상으로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사람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경기 김영배)

식품의 선택기준을 다시 만들어가는
식품문화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식품의 선택기준을 다시 만들어가는 사람들

서울우유
주요품목부터 제조일자 표기

Pulmuone
주요 제품 제조/유통기한 병행 표기

롯데제과(주)
빙과류 제조일자 표기

DUNKIN' DONUTS
커피 로스팅 날짜 고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식품을 만들기 위해,
고객님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
제조일자 표기 캠페인을 함께 전개합니다

제조일자 꼭! 확인해 주세요!

서울우유 1A 원유
서울우유 1A 원유
저지방 우유 지방함량 1%

목장의 신선함이 살아있는 우유
대한민국 대표우유 1A The First Grade Milk
우유/1000 ml

우유/1000 ml
저지방우유/1000 ml

유통기한 확인하여 식품안전 올바르게